

탄력받은 경도 개발...혈값 매각 논란

경제자유구역 편입으로 세금 감면·연륙교 등 국비 지원
“전남도 한치 앞 못 본 매각으로 제값 못 받았다” 목소리

여수 경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서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조원대 투자를 약속한 미래에셋 컨소시엄의 계획대로라면 경도는 오는 2029년 ‘아시아 최고 명품 복합리조트’로 탈바꿈한다.

하지만, 민간에 경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서두르지 않고 좀더 투명하고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했더라면 경도 매각 가격을 크게 끌어올림으로써 전남도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전남도의회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도 매각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도민의 오해를 사고 있다”며 “계약서 공개 등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지적했다.

8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심의회의에서 여수 경도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편입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경도 개발 투자자인 미래에셋은 세금·부담금 감면 등 적지 않은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육지에서 경도로 진입하는 연륙교 건설 과정에서 예상 사업비(620억원)의 상당액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된 데다 연륙교까지 건설되면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접근성의 문제가 해결돼 경도의 가치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의 경도 매각 과정을 놓고 “충분

한 준비 없이 지나치게 서둘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7월 투자기업 제안서 제출 공고를 냈다. 하지만, 당시 경제자유구역 편입을 추진한다거나 연륙교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투자자 모집 공고 당시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면 투자 참여 열기가 뜨거워지고, 경도의 자산 가치도 크게 상승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당시 여수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각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여수의 경우 당시 관광산업의 호재가 잇따르면서 해안공원 등 이른바 ‘돈이 될만한’ 곳은 2016년 초반 3.3㎡당 200만원에서 1년 사이에 5배가 오른 1000만원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여수의 자가변동률은 엑스포가 열린 2012년 2.482%로 전남 평균인 1.345%의 갑절 수준이었고, 이후 2015년 3.254%, 2016년 3.586%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불투명한 매각 과정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6일 전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약서 등 매각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계약금으로 10%(343억원)를 받아야 하는데 50억원만 받아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빌 클린턴에 이어 24년만에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책임 있는 모든 국가 힘 합쳐 北 고립 시켜야”

국회연설...FTA 개정 언급 없이 북한 작심 비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국회 연설을 통해 “변명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힘의 시대”라며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는 늘 강력해야 한다. 세계는 악당 체제의 위협을 관용할 수 없다”고 북한의 핵 위협에 강력 대응 의지를 나타냈다. <관련기사 3면>

트럼프 대통령은 “책임 있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며 “모든 국가들,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격하하며, 모든 무역과 기술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한) 어떤 형태의 지원이나 공급을 부정해야 한다”며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는 이 위협에 함께 대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다릴수록 위험은 증가하고 선택지는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협을 무시하는 국가들에 말한다. 위기의 무게가 양심을 누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한 작심 비판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획득한 무기는 당신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심각한 위

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 정권을 향해 “과소평가하지 말고, 시험하지도 말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미 행정부와는 다르다. 미국이나 동맹국이 협박·공격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핵무기라는 잘못된 희망으로 궁극적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북한 체제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부패한 지도자들이 압제와 파시즘, 탄압의 가치 아래 자국민을 감옥에 가둬다”며 “북한 노동자들은 견디기 힘든 조건에서 끔찍하게 긴 시간을 무보수로 일하고 있으며 10만 명으로 추정

되는 북한 주민들이 수용소에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밝은 길을 논의할 수 있는 경우는 북한 지도자들이 도발을 멈추고 핵을 폐기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 대해 “일정 내내 양국의 오랜 우애를 기념할 수 있어 기쁘고 영광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 “협력 증진과 공정성, 호혜의 원칙하에 양국 간 통상을 개선하는데 있어 생산적 논의를 가졌다”며 한미 FTA 개정 논의 등의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文정부 1기 차관급 이상 고위직 출신高

광주일고·경북고 뜨고 경기·서울·경북고 지고

67명 전수조사

호남지역 출신 17명

차정부 보다 6명 늘어

64% 43명 SKY 출신

50대~60대 97%

문재인 정부 1기 차관급 이상 고위직에서 호남지역 출신 인사는 17명으로, 박근혜 정부 1기 시절 11명보다 6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 명문인 광주제일고와 전주고 그리고 경북고 등 영호남 고교가 전통 강호인 경기고·서울고·경북고 출신들을 밀어내고 출신고교 ‘톱3’로 떠오른 것도 눈길을 끈다.

8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전 정부 1기의 행정부 차관 이상과 청와대 수석 이상 주요 인사 67명을 대상으로 재산, 출신 학교, 출신 지역, 연령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출신 고교는 경기·서울·경북고의 움직임이 주목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경기고 출신이 15.2%(10명)에 달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1.5%(1명)에 그쳤고, 서울고 출신도 10.6%(7명)에서 3.0%(2명)로 줄었다. 이전 정부에서 4.5%(3명)의 비중을 차지했던 경북고는 현 정부 들어선 차관급 이상 고위직 인사를 단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반면 광주제일고, 전주고, 경북고는

차관급 이상 고위인사를 똑같이 3명(4.5%)씩 배출했다. 서울·동성·배재·영등포·이화여고 등 5곳이 2명(3.0%)씩, 광주·순천·경기·광성·대구·우신·제물포고 등 47개 고교가 각 1명(1.5%)씩을 배출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고대·연대 출신이 64.2%(43명)로 전체의 3분의 2 가까이 차지했다.

이전 정부에선 절반도 못되는 48.5%(32명)였다. 대학별로는 서울대 출신이 40.3%(27명)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13.4%, 9명), 연세대(10.4%, 7명) 출신이 2, 3위를 차지했다. 서울대 출신은 박근혜 정부 1기 때도 39.4%(26명)로 가장 많았지만, 연세대(4명, 6.1%)와 고려대(2명, 3.0%) 출신은 4, 6위에 그쳤었다.

출신 지역은 영·호남 강세, 서울·충청 약세 현상이 두드러졌다. 영남은 37.3%(25명)로 이전 정부보다 8.5%포인트가 높아졌고, 그 중에서도 부산·경남(PK, 17명)이 대구·경북(TK, 8명)을 압도했다. 호남도 25.4%(17명)로 이전 정부보다 8.7%포인트 늘었다.

평균 연령은 58.4세로 이전 정부(58.3세)와 비슷했다. 50대가 전체의 56.7%(38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60대(40.3%, 27명)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 둘을 합치면 전체의 97.0%에 달한다. 이밖에 40대와 70대가 각각 1명(1.5%)이었다.

재산분석을 보면, 현 정부 고위직 인사의 평균 재산은 16억5998억원으로 박근혜 정부 1기의 14억7638만원보다 1억8360만원(12.4%)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수능 D-7 르포 ▶6면

안젤라 게오르규 광주 공연 ▶16면

동네책방, 도시 아이콘 되다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雪花秀
Sulwhasoo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S
윤조에센스

피부의 균형을 바로잡아
찬란하게 빛나는 궁극의 윤기를 얻다

설화수 윤조에센스

속부터 우러나오는 건강한 피부 윤기. 치유침 없는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의 균형을 바로잡아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삼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찾은 다섯 가지 성분의 자음단™이 피부 본연의 윤기를 찾아주고
피부의 부족한 기운을 채워 가장 이상적인 피부균형을 완성합니다
매일 아침, 찬란하게 빛나는 윤기피부를 만나보세요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